

제주주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0. 06. 07. (가해) 제2217호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삼위일체’, 안 코넬 리즈 베르 메엔, 1535년,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느님



도량본당 주임 | 박재현 요셉 신부

교회는 오늘 대축일에 삼위일체 하느님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흠송하오며 영원하신 참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미사 「감사송」 중)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 하느님의 삼위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 이시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며,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의 본성을 지닌 바로 그분이시다. 곧 본성으로 한 하느님이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3항)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된다. ‘하느님께서서는 한 분이시지만 홀로는 아니시다.’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별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자인 분은 성부가 아니시며, 성부이신 분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이신 분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 세 위격은 그 근원이 가진 관계들으로써 서로 구별된다. ‘성부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발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단일성은 삼위로 이루어져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54항)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비를 알아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신비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성삼위의 그 사랑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

내 마음의 균형과 질서, 조화 - 가장 큰 방해들 : “불균형”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서는 혼돈에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궁창들(공간)을 나누시며 물과 땅, 땅과 하늘 그리고 각 공간에 있어야 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조 과정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시간 속에 두십니다. 질서와 조화로움, 균형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우리 각자에게 질서와 조화, 균형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의 조화로움과 균형입니다.

우리는 앞의 글들에서 착각,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착각과 고집의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를 불균형 속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인지부조화를 발생시키며 생각의 불균형을 갖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과정,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편파적이고 편협하게 이끕니다. 이것이 습관화되고 고착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소통의 부재를 낳게 되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 불행 사고가 작동되고 반복됩니다. 고집은 치우친 주장만을 고수하게 하여 우리 마음의 의지(신념)가 균형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착각을 통한 사고과정을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잘못된 신념에 빠져 그렇게 행동하고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균형에 빠진 사람은 하느님의 조화, 질서, 균형과 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며, 세상을 향한 한탄과 불만,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분노... 결정적으로 그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책망과 불신, 가학적인 행위,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확실한 끝,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세상에 오시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창조하심을 균형과 조화, 질서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셨을까요? 나의 불균형(혼돈)은 다시 새로워진다는 희망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조는 부활이며 부활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과 고집, 그로 인한 불균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시다. 그러니까 나의 불균형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세요!! **꺾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선교의 근원으로

2020년 5월 21일 바티칸 뉴스 | 번역 김호열

교황청 전교기구(Pontificie Opere Missionarie, POM)에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지침들은 구체적이었다. 메시지에 나온 지침들은 교회의 선교활동의 유일한 근원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회 선교활동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구체적인 일부 병폐들을 피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교황은 선교란 “활동적이거나 기술적인, 전문가적 역량의 세속적 시스템이나 논리”가 적용된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넘쳐흐르는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누구도 홀로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은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거저 받은 큰 선물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곧, 달이 태양빛을 반영하는 것처럼 선교사도 하느님의 빛을 반영하여 밝힌다는 것이다. 교황은 메시지에서 “증인들은 온갖 인간적인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보증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오직 이러한 의미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 영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초대 교회 교부들이 말했던 “달의 신비(mysterium lunae)”다. 교부들은 교회가 매순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산다는 점을 확신했다. 교회는 달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 만일 교회가 자기 자신만 너무 많이 바라보거나 자신의 능력만 신뢰하면 결국에는 ‘자기지시적/자기폐쇄적(autoreferenziale/self-absorption)’이 되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빛을 줄 수 없다.

이번 메시지는 현 교황의 재임 여정을 그린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란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 개종강요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매력’으로 성장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끌려 그분을 기쁘게 따른다면 다른 이들도 이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놀랄 지도 모릅니다.”

교황청 전교기구에 보내는 메시지에 나타난 교황의 의도는 분명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교를 엘리트주의자들의 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가로막고, 선교를 탁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려는 경향을 없애려고 한다. (후자의) 이러한 탁상 프로그램은 추론, 되새김, 외부활동, 훈련 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략으로 삼는다. 오늘 언론에 발표된 교황의 메시지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주교(교황)가 이러한 문제들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교황청 전교기구에 보내는 교황의 메시지는 교황청 전교기구가 지금까지 해 오던 활동들을 넘어선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기지시성/자기폐쇄(autoreferenzialità/self-absorption) △통제하려는 열망 △“상위계급 전문가들”(이들은 세례 받은 이들을 의식을 고취해서 일깨워줘야 할 무기력한 집단으로 간주한다)에게 위임된 선교활동 등과 같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선교의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떠올렸다. 곧, 감사하는 마음과 무상성, 겸손,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친밀함,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등이다.



이정식 요한 (1794~1868년)

이정식(李廷植) 요한은 경상도 동래 북문 밖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무과에 급제한 뒤 동래의 장교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나이 59세 때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한 뒤로는 첩을 내보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요한은 이후 가족들을 열심히 권면하여 입교시켰으며, 누구보다 수계에 열심이었다. 화려한 의복을 피하고, 항상 검소한 음식을 먹었으며, 애궁에 힘쓰면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작은방을 만들어 십자고상과 상분을 걸고 묵상과 교리 공부에 열중하였다.

이러한 열심 때문에 요한은 입교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언제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다. 그러던 중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가족들과 함께 기장과 경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울산 수박골로 피신하여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868년 이정식 요한 회장은 동래 교우들의 문초 과정에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동래 포졸들은 그가 사는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그의 거주지를 찾아내 그곳에 있던 교우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그때 요한의 아들 이월주 프란치스코와 조카 이삼근 베드로는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포졸들 앞으로 나와 자수하였다.

이내 동래로 압송된 요한 회장은 그곳에서 대자 양재현 마르티노를 만나 서로 위로하며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문초를 받게 되자, 요한은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하고는 많은 교우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시인하였다. 그러나 교우들이 사는 곳만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또 형벌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요한과 동료들은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47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신앙을 버리고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

동래 관장은 마침내 사형을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옥에 있는 신자들을 끌어내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로 압송하였다. 이때 사형을 맡은 군사들이 부자를 한날에 죽이는 것을 꺼려 하자, 동래 관장은 동시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기에 앞서 삼중 기도를 바치고 십자 성호를 그은 다음에 칼을 받았으니, 그때가 1868년 9월로, 당시 그의 나이는 74세였다. 순교 후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거두어져 사형장 인근에 안장되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향년 90세) 신부님께서 지난 5월 28일(목)에 선종하셨습니다. 5월 30일(토)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탈출 34,47-6,8-9	제 2 독 서	2코린 13,11-13	복 음	요한 3,16-18
화 답 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제52차 세계성체대회 준비를 위한 6월 13일 전 세계적 성체 조배 동참

제52차 세계성체대회(IEC2020) 준비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전야인 2020년 6월 13일에 전 세계적 성체 조배를 실시한다며,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사무국 사이트(corpusdomini.iec2020.hu)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마련된 성체조배 장소가 안내되어 있으며 새로운 성체 조배 장소를 등록하거나 각자 집에서 참여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체 조배는 제52차 세계성체대회의 목표 중 하나인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8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8일(월) 11:00 계산성당
---------------	---------------------	-----------------	---------------------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6.16(화) 14:00~17(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몸기도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 피정

일시: 6.29(월)~7.6(월)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문의: 783-9817
(010)3360-9817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 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6.12~14 / 6.17~19 / 6.26~28
7.3~5 / 7.19~21 / 7.25~28(우도)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6.19~21 / 7.3~5
7.27~29 / 7.31~8.2
대상: 개인, 가족, 분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6월 가나강좌

일시: 6.21(일) 10:00 ~ 13:00 ※ 시간 엄수, 사전접수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예비 부부) / 25커플
(신청인원 초과시 혼인 날짜를 우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 본당사무실 / 마감: 6.12(금) / 참가비: 2인 3만원

입금: 대구은행 504-10-131272-3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성지여행
국내(제주도·울릉도)
해외 성지순례 전문업체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대형선풍기 에어컨
게르마늄 찜질기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전자관 1층 239호(대구 북구 유동단지로 45)

신교 제200회 118호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 입사-취업 면접, 화술-회담, 대중스피치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010-5538-3809
NAVER 스피치킴교육 김광익(사바나)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 노인 복지주택 /
어르신들을 모신다
성모님 사랑안 -
인력한 노후생활을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평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벨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32-2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신동 616) 천림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원, 053-422-3334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문제만(제르만) 주교
1957년 6월 8일

교육 | 모집 | 기타

청소년 무료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모집

과목: 드론, 요리, 반려견, 가족공예
대상: 학교 밖, 위기, 후기 청소년
마감: 7.2(목) 선착순
주최: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문의: 474-4840 / (070)4741-2238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6월_신성호(분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수지에니어그램 모집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0:00~17:00
대상: 청소년, 자기본질의 이해,
성격장점검사, 가족수지, 소그룹 피정
문의: 다음카페_남대영기념관, 629-1117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소울스테이 모집

일정: 1일, 1박 2일
내용: 숲길 걷기, 예술치료, 스텝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054)652-0591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밀알회 후원회원 모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바오로딸(동성로)서원 개축 후원 모집

만남·위로·기도의 공간으로 교구민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316039-6
문의: 바오로딸, 425-5373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주교좌 계산성당 사무직원(사무장) 채용

자격: 40세 이상, PC가능, 1종 면허 소지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6.13(토)
문의: 계산성당, 254-2300

성요셉재활원 시설관리인 채용

자격: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요셉복지재단 채용공고 양식 확인)
마감: 6.17(수) / 문의: (054)954-4176
<http://www.josephstown.or.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권정선(베로니카), 이임자(아가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개원 40주년 기념(신자 특별 할인 이벤트)
일시: 8.3(월)~31(월)
종합검진센터: 650-4114, 4123
일반검진센터: 650-4590, 4591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8~9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법률 상담, 심리 검사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할 방향 500m)
재입법원 옆
김정임 (아네스)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외과 전문의 이 수 윤(소피아), 홍정훈(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